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잇따라 농작물을 훼손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 멧돼지의 공격으로 파헤쳐진 고구마 밭〈왼쪽〉과 까치 등 새들이 쪼아먹은 배. 〈보성군청 제공〉

야생동물의 습격…농심 '쑥대밭'

멧돼지·고라니·까치 등 수확기 고구마·배 공격 피해 속출

전남 시·군 기동방지단 운영 예방 안간힘

보성군 득량면에 사는 송정자(여·71)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잇따르자 송씨는 콩, 고구마 등을 심은 밭 주위에 철망을 둘러놓거나 허수아비를 세워두기도 했다.

송씨는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농약사에서 냄새가 고약한 농약을 밭두렁 곳곳에 뿌려놓기도 했지만 야생 멧돼지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경순(여·76)씨도 "야생멧돼지가 다자란 농작물을 다 휘젓고 다닌다. 올해 농사도 끝"이라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김태균(여·75)씨도 "보름 전쯤 멧돼지가 고구마 농사를 다 망쳐놨다"며 "군에서 맘 놓고 농사 좀 지을 수 있게 멧돼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확기에 접어든 전남 농촌지역에 잇따라 야생동물들이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피해는 연중 계속되고 있지만, 수확을 앞둔 시기에 발생한 피해는 농심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신고된 것만 349농가, 11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연말 기준) 접수된 937농가, 14억 4천900만원보다는 적지만,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 농가들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이 고구마, 배, 단감, 벼, 콩 등 가리지 않고 농작물을 공격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지난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야생동물에 의한 재산피해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성과 여수 등 전남지역 9개 시·군은 '야생동물 피해 기동방지단(이하 기동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군별 수렵회 회원 9~20명으로 구성된 기동방지단은 지역에 따라 9~11월까지 운영되며, 농가의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해당 지역에서 야생동물 포획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동방지단은 일단 피해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출동하는데다 피해보상 및 방지시설 지원금 규모가 실제 피해 금액보다 적게 조성돼, 농가 구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 등 전남지역 8개 시·군은 예방사업비로 5억3천만원(농가부담 2억1천300만원)을, 순천과 곡성 등 10개 시·군은 피해보상비로 2억9천6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는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피해액에도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은 피해보상금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할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아 이들 지역 피해 농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처지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별로 방지단을 운영하거나 보상금, 예방사업비를 조성해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를 도와 시·군이 보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메신저피싱' 조심하세요

피해 신고 보이스피싱의 두 배

잘 아는 사람인 척하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려 피해 신고 건수가 보이스피싱(음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신저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69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의 3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지난 3월 1천68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4월 850건, 5월 654건 등이었고 7월에는 메신저피싱의 절반 수준인 386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메신저피싱은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평소 메신저로 대화하던 친구라고 착각하고 방심하다가 속는 피해자들이 많다.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점도 피해를 늘리는 요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하며, 평소에 메신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래방 강도 대학생 2명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6일 광주 모 대학교 1년 J(19)씨 등 휴학생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구 쌍촌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L(5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이종행기자 golee@

"수사 하나 안하나…"

장성 놀이시설 유아 익사 사고 한 달

사고원인 못 밝히고 사후조치도 없어

지난달 장성지역 한 놀이시설 내에 있는 야외수영장에서 익사한 어린이의 가족들이 놀이시설 측의 안이한 대처와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한달이 넘도록 경찰수사가 진전이 없는 데다 시설개선 등 사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장성군 삼계면 A관광농원 성인용 풀장에서 윤모(6)군이 물에 빠져있는 것을 신모(15)군이 발견해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끝내 숨졌다. 윤군은 사고당일 가족 등 교회 신도 20여명과 수영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으며, 유아들의 출입이 금지된 깊이 1.4m 가량의 성인 풀장에서 익사상태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윤군의 익사원인이 수영장 시설 미흡과 안전요원들의 부주의 등에 있다며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 수영장에는 감시탑이 없는 데다 안전요원 가운데 일부는 자격증도 없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영장 운영자는 수영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시탑 미설치와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윤군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주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관광농원 대표 홍모(여·50)씨는 "수영장 개장 이후 안전사고 방지를 강조했는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직접적 사인이 시설미비와 안전요원들의 주의 소홀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체면 구긴 광주경찰

고객만족도·치안성과 전국 '최하위권'

성과평가 '실적 부풀리기' 적발되기도

광주경찰이 올해 상반기에도 고객만족도와 치안성과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경찰청이 최근 실시한 '2009 상반기 고객만족 기상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4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는 고객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처리 절차, 담당자 응대 태도 등을 전화모니터로 평가했다. 전남경찰은 2위를 차지했다.

광주경찰은 또 범인검거율 등 각종 성과지표를 평가한 치안종합평가에서도 13위에 머물렀다. 광주경찰은 치안고객만족도와 청렴도, 업무생산성 향상도 등을 평가한 지난해 종합평가에서도 13위에 그쳤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순찰경찰관들이 성과평가를 의식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광주경찰청은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지구대 경찰관의 범인검거율, 112신고출동 건수 등을 계량화해 개별 포상하기로 하자 입건율과 출동건수를 높이기 위한 편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일부 직원들이 순찰대원이나 지구대에 직접 신고한 시민에게 다시 한번 112로 신고해달라는 식으로 출동실적을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896〉 김종두

순천 저수지서 30대 익사

5일 오후 4시30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전모(31)씨가 물에 빠진 것을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전씨는 낚시하던 친구들과 뒤늦게 합류해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상조회사 직원이 유족 금품 훔쳐

쌍나팔

○…장례 절차를 돕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유족의 차량을 부수고 현금을 훔친 유명 상조회사 직원이 눈에 띄는 신체 특성 때문에 경찰에 덜미.

○…6일 광주광산경찰은 B상조회사 직원 정모(43)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광주시 광산구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돕던 정씨는 발인을 앞둔 23일 오전 주차장에 있던 유족 노모(37)씨의 차량 유리를 돌로 부수고 현금 30만원을 가져간 혐의.

○…경찰은 "머리가 벗겨진 남성이 주차장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압축한 끝에 정씨를 붙잡았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어서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